

한국 백색국가서 일 배제 첫 논의...발표는 연기

이총리 “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첫 허가” 일 변화기류 감지... “규제·일정 구체 논의 필요하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해당 안전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전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

응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 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

다. 한국의 백색국가에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회의에 앞서 이번 주 내 정부가 자료 혹은 브리핑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제도 변경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라서 정부 역시 추이를 보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려면 20일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총 소요기간은 30~40일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같은 달 4일 0시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라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다만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평화 비당권파 10명 집단탈당...정계개편 신호탄

유성엽 오늘 탈당계 작성 천정배, 박지원 등 참여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10명이 집단 탈당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과 연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제33차 신당 결성을 위해 집단 탈당하기로 입장을 모으고 오는 12일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당권파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대안정치 회의 직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면서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당 탈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에는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정배·박지원·장병완·윤영일·이웅주·정인화·최경환·김종희·장정숙의원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장정숙 의원은 탈당계 대신 평화당 당직 사퇴서를 내고 대안정치에 동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탈당을 감행하면 국민의당 분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탄생한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 6개월 만에 다시 분당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평화당 소속 의원은 14명이다. 바른미래당 당직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2명의 의원을 포함하면 16명이다. 다만 이들 의원은 이날 탈당계만 작성



유성엽 원내대표(왼쪽), 장병완 의원 등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8일 국회에서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고 탈당 선언은 나올 뒤인 오는 12일에 하기로 한만큼 실제 탈당 선언 전까지 당권파와의 추가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앞서 유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평화당 소속으로서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생각을 갖고 어렵게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동영 대표에게 원할하고 신속한 제33차 신당 결성을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하라고 제안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당권 투쟁으로 받아들이며 거부했다”며 당권파를 정면 겨냥했다.

이어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한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안정치연대가 변화와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도 또 “우리가 탈당 입장을 밝혔지만, 궁극적으로는 탈당이 결정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권파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안정치는 대표를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하고, 일단 유 원내대표가 대표 대리를 맡기로 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간사를, 장정숙 의원은 수석대변인을, 윤영일 의원은 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각각 맡았다.

유 원내대표는 특정 인물의 영입과 관련, “가급적이면 깜짝 놀랄 인물을 내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기 브리핑

장병완, 고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지난 설 연휴 본인의 사무실에서 순직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의원은 고 윤한덕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 안전이 8일 오전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한덕 센터장은 전남대의대를 졸업한 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거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으로 봉직하면서 우리 나라 외상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헌신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윤한덕 센터장의 순직에 애도와 감사를 표하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장 의원은 정치권 최초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서 당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윤한덕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촉구했다.

오늘차관회의의결은 윤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안료된 것이며, 앞으로 8월 13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장병완 의원은 “이번 윤한덕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황주홍 ‘안전먹거리 시스템 찾아’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 GAP제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역 경북대학교 교수의 ‘GAP을 통한 PLS실현으로 농식품 안전성 확보’와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의 ‘GAP제도 활성화를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대’ 등 두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황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 분야 예도 보다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부



응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GAP제도(농산물우수관리제도)이며, GAP제도가 농식품의 각종 위해소에 대한 사전 관리를 바탕으로 농촌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GAP제도가 정착되면 농식품의 종합적인 관리와 농촌 환경 개선 등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상승할 것”이라며 “농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h3>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h3> <p>*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에서 15분 ⇒ 앞면 15미터 장성 IC, 장성호(담)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물류창고.사무실 <p>① 300평 - (평당 80만원) - 매가 2억4천만원(용1억5천)</p> <p>② 1,080평 - (평당 70만원) - 매가 7억5천만원(용4억5천)</p> <p>① 장성을 용강리·장성담 옆 (국도도로접함) 1,370평 → 매가가 1억 5천만</p> <p>② 장성을 덕진리·장성담 위 (도로접함) 500평 → 매가가 2억5천만</p> <p>③ 장성을 남면·첨단지구5분 (도로접함) 1,090평 → 매가가 3억5천만</p> <p>④ 담양군 금성면 (메타세콰이어부근 도로접) 1,000평 → 매가가 5억</p>	<h3>상가 매매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 대형학원, 한의원, 스포츠, 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전체평수 - 300평) ■ 보증금 5천만 월 400만 임대가능 <p>감정/시세 → 15억 매 가 → 7억5천</p> <p>① 상가매매 - 상무지구 메가박스 앞 (7층 중 6층) 보 3천 월 150만(임대가능) ▶ 매가가 2억8천만 (용1억4천8백)</p> <p>② 첨단지구 10층중10층 (상가, 사무실) 보 1천 월50만 (임대가능) ▶ 매가 8천만 (용 3천만)</p> <p>③ 원룸매매 (현대아파트 입구 앞) 용평1C1분, 전대5분 토지 80평 건 165평 (월률9개, 1.5룸6개) 보3천 월수익 500만 ▶ 매가 7억</p> <p>④ 고시원매매 - 조대 후문 3분 토 79평, 건 159평 룠 50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6억8천만</p>	<h3>경매 교육 [가초, 특수] 전문</h3> <p>★ 경매교육 특수반 모집 ★</p> <p>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수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자사권, 지분, 연필)</p> <p>※ 10억짜리 부동산을 3억에 가능</p> <p>경매교육 하면서 (실전) 바로 (수익창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이 2~3회 유찰 물건 (절반가격) 2. 유치권, 지분, 법집, 개발,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급 실전반 - (기초 + 실전) - 무료교육 ② 중급 실전반 - (기초 + 실전 + 특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집, 개발, 절반가격) <p>매주 (월, 수, 토) 개강 ※ 사무실 쓰면서 전문 직업 하실 분 (책상, 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분석스터디)</p>
010-7384-7800	010-6670-9800	